

민주 “KBS 사장 오자마자 땡윤 뉴스”

이재명 “언론 장악, 무덤에서 부활”...박민 사장 자진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민 KBS 사장 취임 후 뉴스 진행자가 대거 교체된 것을 언론장악 시도로 규정하면서 정부와 박 사장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들...언론장악”이라고 적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사장이 더 이상 KBS 사장직에 있는 건 본인에게도,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에도 불행한 일”이라며 “빨리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장과 함께하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

해서도 만약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박 사장과 현 경영진 모두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KBS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사과한 데 대해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신뢰 받는다고 평가받는 매체와 기관을 공정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누가 공정성을 가진 기관과 매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주 동떨어진 세상에 살고 계신 분이

KBS 사장이 되신 것 같다”며 “반성이 필요하고 자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사장의 인사발령문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유출된 것을 두고 “공영 방송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것으로 부족해 일베와 같은 극우세력과 결탁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 취임 후 확보된 KBS 뉴스를 보며 시청자 게시판은 경악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며 “KBS를 ‘땡윤 방송’을 넘어 ‘일베 방송’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비명계 4명 ‘원칙과 상식’ 모임 결성...“상식의 정치 세우겠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승천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4명이 16일 ‘원칙과 상식’이라는 별도 모임을 결성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승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지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원칙과 상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게서 떠나는 민심이 민주당으로 모이지 않아 내년 총선도 ‘비호감 총선’으로 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실패하게 돼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 지도부에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 3개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돈 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진명 감별사’들이 벌이는 ‘진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의 ‘진박 감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니다”라며 “진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 유튜브 언론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전 정치 회복’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잘 싸워 권력을 잡고, 200석을 얻고, 재선·3선을 해도 민생을 못 살리면 실패한 정치”라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내놓고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을 받기 위해 모임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시적이 있다”고 묻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하자고 하는 게 (공천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답이 됐느냐”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금태섭, 조국 신당설에 “명예 안다면 해선 안돼”

“이준석 국힘 유턴 가능성 없어”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은 16일 이른바 ‘조국 신당설’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명예 회복’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명예가 뭐지 안다면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국 신당에서) 1~2명 당선될 수도 있지만 유권자들의 호응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을 시사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라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직전 대표를 했

고, 국민의힘을 좀 고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지금은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면 이 전 대표도 저를 만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전 대표가 유턴한다면 (신당 창당 등의 논의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 김종민 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사적 모임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면서 “지금 우리 정치가 보수정당 혹은 진보정당 내에서 어떻게 될 문제는 아니고 구조적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의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 창당 준비와 관련해서는 “당원 5천명을 모아 창당해야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12월 중순쯤 하려고 했던 창당대회를 12월 초로 당기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청년 일경험’ 2382억 삭감 단독의결

尹 ‘청년내일채움공제’ 삭감 대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독 의결에 반대해 불참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86억1800만원 증액되고 2401억400만원 감액돼 총 2214억8600만원 감액됐다. 특히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1300만원은 전액 깎였다.

앞서 진행된 환노위 예산결산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 장기근속 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에 쓰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

산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고용부 예산안은 ‘약자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 정책 호응과 집행률이 높아 예산이 완전히 소진되는 사업이었는데도 4200억원(65.69%)이 삭감된 채 정부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에 대해선 “아무런 보장도 없이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지속하는 사업”이라고 삭감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정준호 “서진정책 주장 이준석, 광주 출마하라”

광주 북구갑 출마예정자인 정준호 변호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광주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전 대표가 공약한 복합쇼핑몰 건립이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호남에 구애를 해온 만큼 광주 북구갑에 출마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정준호 변호사는 16일 신당 창당을 시사하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그동안 서진(西進) 정책을 주장해 온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 광주에서 출마하라”고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복합쇼핑몰 공약 이후 광주시민들에게 어필할 제2·3 공약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말만 던지지 말고 광주 출마를 통

해 서진 정책을 행동으로 보여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에게 “본인이 공약했던 복합쇼핑몰이 광주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건립을 위한 사업자와 시의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신당 창당을 해 내년 총선에서 건립

(공공기여) 협상이 진행 중인 북구갑 지역구에 출마해 청년 후보끼리 경쟁하자”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 광주시당 북구갑 지역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당 윤리심판위원, 이재명 대선후보 광주선대위 조직3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더민주 광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